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3월을 총평해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과 크게 어긋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00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생계시세는 2,000원대를 형성했고, 3월말 현재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5,000~6,000톤 정도가 수입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선적지연으로 3월 중반까지 싸이라고 불리는 넓적다리(Bone In Thigh)의 경우 품귀현상이 나타났고, 3월 후반부터 물량이 속속들이 부산항에 도착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산의 잠정적인 수입중단으로 인해 통날개(Three Joint Wings)의 경우 가격은 kg당 4,000원대를 넘어 5,000원대까지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닭고기 가격의 폭등으로 일반 닭고기 매장에서 아우성이 예상된다.

야생조류(Wild Bird)에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는 OIE에서 규정하는 조항과 위배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OIE 본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OIE에서는 야생조류(Wild Birds)와 가금육(Poultry and Poultry products)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야생조류 발생으로 인해 무역규제를 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에 따라 덴마크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동지역에 변함없이 수출하고 있으며 오직 한국만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 한 이는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덴마크 닭고기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고급육의 진면목을 보여주었고, 한국에서 늘 부족하던 날개(Wings) 부분에 대한 해법을 주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제품과는 달리 I.Q.F 포장이 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주었고, 일반 소매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닭고기 소비패턴을 보면 100% 자급자족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객들이 다리와 날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슴살(Brest Meat), 안심

(Inner fillet)은 늘 재고문제를 야기한다.

총 소비량을 100%이라고 본다면 10%의 절대 수입영역은 존재한다. 시장가격의 안정을 주며, 국내 가금 산업에 이로운 역할을 했던 것이 덴마크 닭고기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국내산 날개(Wings)를 100%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내의 대형 육계 계열회사들은 이를 충당할 수 없다. 날개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어지는 가슴살과 안심의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출도 불가능하다.

유럽과 미국에 수출검역이 가능하다면 해외 판매가 가능하지만 현재 어떤 검역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이다.

브라질

러시아로의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판매시장 확보에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최저가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정육(Bone Less Leg Meat)의 수출가격은 대략 1,000~1,200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날개품귀 현상에 따라 1+3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즉, 날개 1컨테이너를 구매하면서 정육 3컨테이너를 구매하라는 것이다.

지난달 Japan Foodex와 Seoul Food Show를 통해 브라질 업체들은 한국과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로 인해 다소 많은 브라질 정육이 한국에 수입될 것 같다. 날개(Wings)를 구매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정육을 구매하고 있다.

미국

계속된 선적지연으로 시장수급의 균형이 무너져 3월 말부터 대량의 닭고기가 부산항에 입고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4월에 도착되는 닭고기와 5월에 도착되는 닭고기의 가격이 크게 달라 덤핑가격이 예상되기도 하고, 사이즈가 보증된 장각(Sized Whole Legs)은 적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대량으로 수입되는 사각(Leg Quarters)의 가격은 원가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덴마크

잠정적인 검역중지를 통해 정부 간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OIE규정과 타국가의 검역현황을 근거로 한국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야생조류에서 가금육으로 전파된 프랑스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태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교섭이 길어질수록 국내의 날개(Wings)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고, 부산에 검역대기 중인 컨테이너의 부대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양국의 회사간의 분쟁의 여지도 깊어질 것이다.

결론

업계에서는 질병발생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덤핑 판매되던 상품이 갑자기 품귀현상을 빚고, 좋은 값에 팔리던 상품이 해외가격 폭락으로 하루 아침에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닭고기 업계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

합리적인 판단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안목으로 쉽지 않는 시장을 잘 헤쳐 나가기 바라는 마음뿐이다. 🐔